2009년 社稷대제에 안동권씨 참여

后稷위 초헌관에 權正昌씨 행공

▲ 사직대제의 어가행렬이 이르고 있다

▲ 제전행사가 봉행되고 있다.

9월 20일 일요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사직단社稷壇에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고 풍년을 감사하는 2009년 기축년己丑年 가을의 사직대제社稷大祭가 봉행되었다. 사직은 옛적에 임금이 자기 조상을 제사하는 종묘宗廟와 함께 나라의 가장 큰 제사였다. 왕이 창업개국創業開國을 하면 도읍에 정궁正宮을 세우고 그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을 받들었다. 그래서 종묘사직이라 하면 곧 국가를, 다른 말로 국통國統과 왕통王統을 지칭하는 바 되었다.

국왕이 사직신神에게 올리는 제사가 이 대제인데 지난날 이것을 봄에 지내면 풍년을 비는 게 되고 가을에 지내면 추수를 감사하며 여름에 지내면 기우제祈雨祭로서 비가 오기를 비는 게 되었다. 사직은 토지의 신 사社와 곡식의 신 직稷을 말하는데 이를 합쳐 부르는 바요, 토지의 신 사에는 남신男神 태사太社와 여신女神 후토后土가 있고 곡식의 신 직에도 남신 태직太稷과 여신 후직后稷이 있어 4신이 되며 이 네 신에게 각기 세 번 작헌爵獻하므로 이 제사에는 12인의 헌관이 배정된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집사관도 다른 제사의 4배가 되면서 매우 장엄한 의례가 행해진다.

▲ 후직위 권정창 초헌관이 작헌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후직위전에서 권재종 내봉관과 권오달 외봉관이 봉무하고 있다.

제사는 흙으로 쌓은 두 개의 제단 사직단社稷壇에 2위씩 4위의 신을 모시고 행한다. 기원은 중국 춘추시대에 천지인天地人 삼위일체 사상이 정립되면서 사와 직을 토지와 곡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일원화하여 제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나가 제사를 올리는 국가행사로 되었다. 춘추로는 정시제定時祭를 올리고 정월에는 풍년기곡제祈穀祭, 풍년든 가을에는 감사제, 가물면 기우제, 햇과일이 나오면 천신제薦新祭, 길흉사변에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한국에서 사직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조선 태조는 개국하면서 종묘와 사직단을 마련하여 정궁 경복궁景福宮의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단을 세워 나라와 백성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케 했다. 제왕은 제사에 앞서 3일 동안 재계하는데 재계중에는 문상問喪·문병을 않고 음악과 주육을 금하며 형살刑殺도 중지했다. 사직단으로 출궁하는 날 문무백관은 궁궐 앞에 늘어서고 호위관원을 비롯한 행렬이 벌여서면 상서원尙瑞院 관원이 옥새를 받들고 왕께 문안하여 수레에 오르게 한다. 수레를 타고 나온 임금이 궐밖에서 연輦에 오르게 되면 백관이 말을 타고 뒤따라 출발하며 그 뒤로 현무대玄武隊가 따르는 등 앞뒤로 장관을 이루는 어가행렬御駕行列이 이어진다.

제왕이 사직단에 임하면 제전이 시작되는데 그 순서는 사직의 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 신께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 조육俎肉을 올리는 천조례薦俎禮, 첫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두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마지막 잔의 종헌례終獻禮에 이은 음복례飮福禮·철변두撤 豆·송신례送神禮·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행사된다.

제수祭需는 희생犧牲의 태뢰太牢로 소·돼지·양의 생고기를 비롯한 각곡식을 진설하며 제복은 초헌관이 구장면복九章冕服을 갖추고 제관은 금관조복金冠朝服으로 길례吉禮로써 행한다. 악공이 음악을 연주하고 무희가 일무佾舞를 춘다. 제향악 순안지악順安之樂과 숙안肅安지악·옹안雍安지악에 맞춰 문무文武의 일무, 즉 줄춤을 추는데 초헌례에는 수안壽安지악이 연주될 때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이어 추고 서안舒安지악이 또한 이어 연주된다. 아헌과 종헌에는 수안지악과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철변두에는 옹안지악, 송신에는 순안지악이 연주되는 등 악과 무가 갈마들면서 장엄한 제례의 관경이 연출된다.

사직제례의 절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중국 격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고유의 예를 더하게 되었고 고종 31년, 1894년에 조선이 황제국 대한으로 바뀜에 따라 제례도 새로이 확대되었는데 순종 2년, 1908년에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1988년에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를 복원 재현하게 되었다.

사직대제는 2000년 12월 19일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면서 기능보유자로 전주리씨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의 이건웅李建雄씨가 지정되고 동종약원에는 사직대제보존회가 구성되어 보유단체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사직대제보존회에서는 전주리씨종약원의 종묘제례보존회와 함께 매년 종묘제례 및 사직대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동권씨종보사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여기에 교육생을 파견해 학습케 하고 제전에도 제관으로 봉무케 해왔다. 금년 대제에는 보존회에서 4초헌관 중에 후직위后稷位 초헌관을 안동권씨문중에 배정하여 천거를 의뢰함에 따라 종보사에서는 좌윤공파 죽림공계 36세世 권정창權正昌씨를 천망하였다. 안동시 풍산에 세거하는 권정창씨는 행사 전일 상경하여 오후에 사직단 현장에서 습의習儀를 하고 일박을 하며 당일 이른 아침부터 전사소典祀所에 나아가 행공하였고 권씨문중인으로서 기능전습자인 본사의 권재종權在琮 주간은 후직위의 내봉관內奉官이 되고 필자 권오달權五達 편집위원은 후직위의 외봉관外奉官이 되어 습의 과정에서부터 연일 헌신하였다. 헌관 권정창씨는 안동군청과 시청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가 안동시립도서관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고 퇴임 후에는 안동화수회 사무장을 거쳐 안동권씨대종회의 간사장을 지내며 종사에 봉사해왔다.

이날 후직위에 초헌관이 고한 축문과 주요 헌관 및 집사관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 축문(전략)

후직씨지신后稷氏之神 복이탄파가곡伏以誕播嘉穀 군려편육群黎 毓 고예길견顧豫吉) 신석전곡申錫 穀 근이생폐례제謹以牲幣禮齊 자성서품 盛庶品 식진명천式陳明薦 작주유신作主侑神 상향尙饗 : 후직씨신께 아뢰나이다. 엎드려 사뢰건대 아름다운 곡식을 씨뿌리고 싹틔우사 무리백성을 두루 기르시고 좋은 날을 가려 우러러 받드는 것을 돌보사 지극한 복을 후히 내리시는지라 삼가 희생과 폐백과 좋은 단술에 여러 곡물로써 갖춰 펼쳐 밝게 올리나니 신주에 임하신 신령께서는 바라건대 흠향하소서.

● 헌관·집사관 명단

초헌관 : 이원李源(황사손皇嗣孫)·김충용金忠勇(서울 종로구청장)·이계형李啓珩·권정창權正昌

아헌관 : 이태우李泰雨·이

3면으로 계속

▲ 권정창 초헌관이 작헌례를 마치고 강복위하고 있다.

▲ 행사를 마치고 안동권씨 헌관 · 제관과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었다.